

예능가 휩쓴 올림픽 스타들...1,800만뷰 돌파



MBC '라디오스타'와 '놀면 뭐하니'

펜싱-양궁 선수들 중횡무진...탁구 신유빈 '맹활약'
'라디오스타'·'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10여개 출연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방송가는 올림픽 영웅들의 예능 출연으로 올림픽 특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방송사의 클립 VOD(주문형비디오)를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 미디어랩(SMR)의 분석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올림픽 스타들이 출연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클립 조회 수는 총 1,801만 5,000회를 넘어섰다.

선수들이 출연한 예능은 SBS TV '집사부일체', '신발벗고 돌싱포맨',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TV '놀면 뭐하니',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JTBC '야는형남',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살림하는 남자들',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10개 이상에 달한다.

종목별로는 남자 펜싱 4인방과 남녀 양궁 단체전 선수들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종목은 올림픽 초반에 메달권에 진입했고, 비교적 먼저 귀국해 예능 녹화를 진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으로 결성된 남자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야는형남', '집사부일체', '신발벗고 돌싱포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입담을 뽐냈고, 뒤를 이어 남녀 양궁 국가대표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 '집사부일체', '라디오스타', '유희열의 스케치북',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가장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으로 2주에 걸쳐 무려 4종목, 11명의 선수가 출연했다. 특히 타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럭비와 체조 등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에게 주목하고 메달을 획득한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을 초청해 호평받았다. 이들이 출연한 회차의 클립은 전회차 대비 417만 뷰 치솟아, 무려 195만 4,000뷰 재생됐다.

'집사부일체' 에도 총 10명의 선수가 3주에 걸쳐 출연했다. 3주간 올림픽 중계로 결방 후 4주 만에 방송된 '집사부일체'에는 펜싱 국가대표팀이 출연해 전 회차 대비 43만 뷰 상승한 75만 7,000 뷰를 기록했다. 이어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남녀 양궁 단체전의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강채영, 장민희, 안산이 출연하자 클립 조회 수가 전회차 대비 22만 뷰 다시 올라, 2주간 150만 2,000회 재생됐다.

'MSG위너비 특집'을 마무리하고, 4주간 결방했던 '놀면 뭐하니'에는 탁구 신유빈 선수가 출연했다. '무한도전'에서 탁구 기대주로 출연한 뒤 7년 만에 다시 출연한 신유빈은 유재석, 정준하, 하하 등 원년 멤버와 조우하며 탁구 대결을 펼쳤다. 신유빈 출연 분은 2주간 약 563만 9,000회 재생된 것으로 나타나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전회차 대비 무려 187만 8,000회 수직으로 상승해 10개의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도쿄올림픽 폐막일인 지난달 8일 가장 먼저 펜싱 국가대표팀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펜싱, 체조 등의 올림픽 뒷이야기를 발 빠르게 전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2주간 132만 뷰 조회됐다. '라디오스타'에는 오진혁, 김우진(양궁), 안창림(유도), 김정환, 구본길(펜싱)이 입담을 펼치며 280만 6,000회 재생됐다. /연합뉴스



고 권순옥 감독

'보아 오빠' 권순옥 감독
복막암 투병 중 별세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의 둘째 오빠이자 광고·뮤직비디오 감독인 권순옥씨(39)가 암 투병 중 별세했다.

보아의 첫째 오빠인 피아니스트 권순환씨와 보아 등 유족은 권순옥 감독이 5일 오전 0시 17분 별세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권순환씨는 "코로나19로 친인척 분들과 장례를 진행한다"며 "따뜻한 마음의 위로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05년 영상 제작 회사 '메타올로지'를 설립하고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을 연출해 왔다. 팝핀현준의 '사자후' 뮤직비디오로 데뷔해 걸스데이 '반짝반짝', 마마무 '피아노맨', 보아 '온리 원', '키스 마이 립스' 등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그는 올해 5월 SNS에 "복막에 암이 생겼고 전이에 의한 4기 암"이라며 "기약 없는 고통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투병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오전 7시다. /연합뉴스

마마무, 베스트 앨범 발매
'데칼코마니' 등 히트곡 망라

데뷔 7주년을 맞은 걸그룹 마마무가 그동안의 활동을 총망라한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다.

소속사 RBW에 따르면 마마무는 오는 15일 베스트 앨범 '아이 세이 마마무: 더 베스트' (ISAY MAMAMOO: THE BEST)를 발매한다.

소속사는 "마마무의 그동안 발자취를 기념하는 앨범으로, 앨범명 또한 마마무를 소개하는 인사말에서 착안했다"며 "마마무라는 그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년 '미스터 에매모호'로 데뷔한 마마무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통해 K팝의 대표적 실력파 걸그룹으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피아노맨', '음오아예', '넌 is 뭔들', '데칼코마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다.

솔라, 화사, 휘인, 문별 등 네 멤버 각각의 개성도 두드러져 솔로 활동으로도 두각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이돌의 통상 전속계약 기간인 '데뷔 후 7년' 문턱을 넘어 앞으로도 팀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다.

솔라, 문별, 화사는 RBW와 재계약을 맺었고, 휘인은 소속사를 옮겼지만 마마무 멤버로서 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베스트 앨범에는 팬들이 다시 듣고 싶어한 역대 히트곡들이 수록된다.

마마무는 히트곡을 새롭게 편곡하거나 재녹음해 더 깊어진 감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음원도 마마무 버전으로 재탄생한다. /연합뉴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3주년을 기념하고, 내년에 있을 재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권)과 광주MBC(사장 김낙곤)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MBC가 주관하는 '2021 광주MBC 무등산권 지오파크'가 7일 화순 고인돌유적전시사체협장에서 지오토론회 화순군 편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무등산권 지오파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담론 형성을 위한 '지오토론회'와 지오명소와 지오빌리지 탐방으로 구성된 '지오토레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의 주제인 '지오라이프'는 무등산권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등산권에 터를 이루고 살아온 지역민의 공유와 공감의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화순군 편 지오토론회에는 허민(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정은성(호남대 환경영학과) 교수, 김정란 자연음식연구가, 무등산권 지오빌리지 1호인 청풍 지오빌리지 협의체 문형태 대표가, 28일 담양도래수마을에서 열리는 담양군 편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강재원 도래수마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전문적 담론을 쌓고, 지오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지오빌리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 먹거리 등 다양한 삶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무등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광주MBC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13~15일에는 무등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담양, 화순, 광주지역 지오명소와 지오빌리지 투어, 지오프드와 파트너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지오토레일이 진행된다.

지오토레일에서는 무등산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를 이용하고 자연 요리 전문가와 지역민의 검증과정을 거쳐 탄생한 지오프드와 마을 사람들의 삶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즉녹면 국수, 대통밥과 대사리 된장국, 색소제를 이용한 접시 만들기, 약초 품은 닭숯불구이, 천연한방삼파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재인증 위한 담론 형성을 위한 '지오토론회'

무등산권 유네스코 재인증 담론의 장
내일 화순 무등산권 지오파크 토론회

오는 28일엔 담양군 편

양한 삶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무등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광주MBC 제공

오늘의 운세				9월 6일 (음력 7월 30일)			
 子	48년생 자식 사랑은 끝이 없는 법이다. 60년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72년생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84년생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丑	49년생 행운이 발동하니 힘든 줄을 모르겠다. 61년생 주식이 상한가를 친다. 73년생 좋은 소식이 있겠다. 85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	 寅	50년생 사랑한다면 믿어줘라. 62년생 하면 된다. 74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86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卯	51년생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로다. 63년생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싸워서 뺏아라. 75년생 남도 보고 뺏도 만다. 87년생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辰	52년생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64년생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라. 76년생 돈과 명예 모두 가질 수는 없겠다. 88년생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라.	 巳	41년생 욕심을 버려라. 53년생 등 따습고 배부르니 사나이발자 이만하면 됐다. 65년생 내 앞길에 장애물은 없다. 77년생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라.	 午	42년생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해 줘라. 54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66년생 부질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78년생 현상유지만 하면 성공이다.	 未	43년생 가족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라. 55년생 예상보다 결과가 더 좋다. 67년생 더 이상의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79년생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申	44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56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다. 68년생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라. 80년생 소인배들의 아침에 넘어가지 말라.	 酉	45년생 작은 행운이 연이어 찾아온다. 57년생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된다. 69년생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길지 않다. 81년생 할 말은 하고 살자.	 戌	46년생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5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70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 82년생 연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亥	7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59년생 정말 사랑한다면 믿어주자. 71년생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83년생 최선을 다한 후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라.